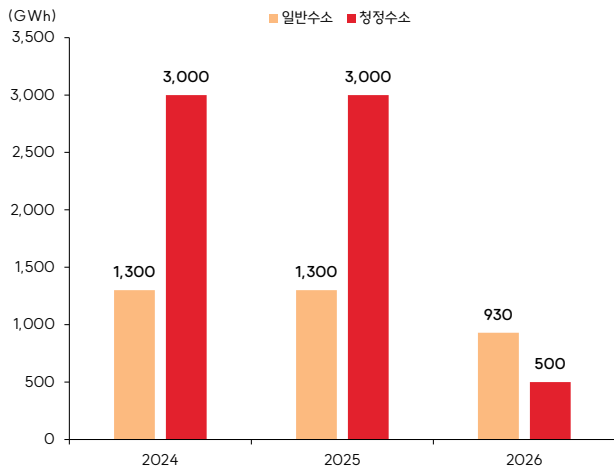


우리나라만의 수소 경쟁력을 갖기 위한 초석

2026-08-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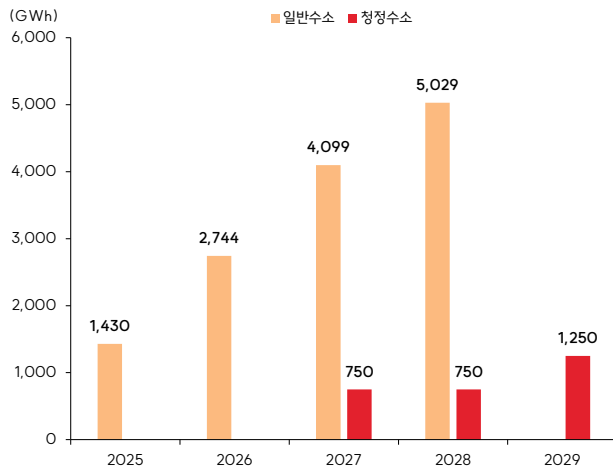
- 지난 3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/이용/보급 촉진법, 9/18 부터 시행
- 재생에너지 태양광/풍력 중심으로 재편되고, 수소 및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으로 이관
-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는 제외
- 지난 6월 발표된 2026년 수소발전 입찰 물량, 청정 수소 3,000GWh > 500GWh, 일반 수소 1,300GWh > 930GWh로 축소
- ①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가 상당수 LNG 개질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탄소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고,
② 청정 수소의 기준이나 조달 구조가 아직 미흡하고,
③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-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
- 국내 청정 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찰 평가 체계 개편하겠다는 의지 반영, 환경성 평가 기준도 대폭 강화
-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해외 청정 수소/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관련 예산 전액 불용
- 해외 그린 수소 수입해 석탄 발전소에서 혼소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은 중단, 국내 그린 수소 생산 생태계 육성 중심으로 방향 전환
-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행보는 국내 수소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
- 수소 에너지를 기존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바라봤던 기존 관점에서 탈피하여 탄소감축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
- 단순 수소 보급 확대를 넘어 청정성/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선별기로 정책 전환 국면
- 국내외 수소 밸류체인 움직임 양극화 나타나는 이유, 단기적 수혜 vs 중장기적 지속가능성(수익성 확보 가능성)에 대한 고민 지속될 것

연도별 수소발전시장 개설 물량 추이

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, SK증권

연도별 수소발전시장 구매량 추이

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, SK증권 / 주: 누적 기준

COMPLIANCE NOTICE

작성지(나승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> 매수 / -15%~15% > 중립 / -15%미만 > 매도